

골로새서 1:24와 2:18의 번역과 해석에 관한 고찰

조경철*

1. 시작하는 말

외국어로 된 어떤 문헌을 다른 언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과제이다. 역사와 문화의 공간을 뛰어넘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종교적인 경전의 번역에는 더 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경의 번역을 “불가능한 과제”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¹⁾ 그러므로 현대 번역학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나이다(E. A. Nida)의 역작²⁾이 나온 이래로 번역에 관한 수많은 방법론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 다양한 번역의 이론과 모델들이 있고, 그것들은 모두가 그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지고 적당한 역할을 한다. 어느 하나의 번역이 절대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번역에 얽힌 다양한 이론과 모델들을 단순화해서 생각한다면, 결국은 나이다가 구분했듯이, 두 언어의 “형식적인 동등성”이나 혹은 “역동적/기능적 동등성”이나의 선택으로 집약될 수 있다.⁴⁾ 이는 결국 번역자의 해석적인 견해가 최소화된 번역이나 아니면 해석적인 차원이 깊이 내재되어 있는 번역이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해석적인 개입이

*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신약성서신학.

- 1) W. Klaiber, (Bibel-) Übersetzen - eine unmögliche Aufgabe?, *Theologische Literaturzeitung* 133(2008), 468-492. 본 논문의 들어가는 말은 전반적으로 클라이버의 논문을 참고한 것이다.
- 2) E. A. Nida,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Principles and Procedures Involved in Bible Translation*, (Leiden: Brill Academic Press, 1964). Nida의 작업이 성서번역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P. C. Stine, *Let the Words Be Written: The Lasting Influence of Eugene A. Nida* (Leiden: Brill Academic Press, 2004)를 참조하고, 이 책에 대한 소개와 나이다를 평가하는 다른 문헌들에 대해서는 「성경원문연구」 제22호(2008년 4월), 223-239에 있는 유지미의 서평을 참조하라.
- 3) 다양한 번역 이론의 논란에 대한 간단한 요약과 그에 해당하는 문헌들에 대해서는 W. Klaiber, “(Bibel-)Übersetzen - eine unmögliche Aufgabe?”을 참조.
- 4) Ibid., 469. 나이다의 이런 구분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각기 다른 개념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예를 들어서, 콜러(W. Koller)는 “옮겨 놓는/낫설은 번역”과 “입양하는/동화하는 번역”으로 구분하고(*Einführung in die Übersetzungswissenschaft*, UTB 819, 2004⁷), 베누티(L. Venuti)는 “외국화하는 번역”과 “국내화하는 번역” 등으로 구분한다(*The Translator's Invisibility-A History of Translation*, London, 1995).

전혀 없거나 혹은 최소화하더라도 번역의 목표가 되는 독자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다면, “형식적 동등성”의 직역이 최선의 번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원문은 읽는 사람과는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며, 가능하면 그 객관성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것이 성경 번역의 일차적인 목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번역자 자신이 개인적으로 아무런 감흥을 받지 못하는 원문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해줄 책무를 갖는다. 그런 점에서 번역은 해석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번역은 원문의 내용과 논쟁을 별이는 것이 아니라,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드러내는 반면에, 해석은 원문의 내용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쟁을 한다. 그러므로 해석은 해석자의 자의성에 맡겨질 위험이 있지만, 번역자는 원문에 대한 충성의 의무를 갖는다.⁵⁾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반드시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⁶⁾ 첫째, 성경의 번역은 정경적인 원문을 가능한 정확하게 보존해야 하며 동시에 번역에서도 그 권위가 훼손됨이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번역자의 신학이 가능하면 배제되어야 한다. 둘째, 성경의 원문을 “사실적인” 성격으로 보는 경우와 “호소하는” 성격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기 다른 번역의 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 선교를 목적으로 한다면 성경은 호소적인 성격을 강조해서 번역해야 하고, 사실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번역이라면 언어와 문체 그리고 내용의 정확성을 강조하는 번역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이런 양자택일식의 번역은 성경의 성격에 항상 어울리지 않는다. 성경은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호소적이면서 사실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을 번역할 때에는 이런 성경의 성격에 맞추어 “역동적 동등성의 방법”을 취해야 한다. 셋째, 모든 문화권에는 이미 매우 높은 존중을 받는 번역 성경들이 존재하고 있다. 독일어권에는 루터 번역이고, 영어권에는 제임스왕역이고, 아마도 한국에서는 개역성경일 것이다.⁷⁾ 이들은 이미 다른 번역들에 대해서 비교적 강한 영적인 권력을 누리고 있으며, 그러므로 다른 번역들은 어떤 식으로든 이런 번역 성경들과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보면, 결국 성경의 번역은 세 가지 부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원문에 언어적으로나 문법적인 구조에 충실한 번역이고, 다른 하나는 현대의 독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가장 높은 가치로 보는 번역이며, 마지막

5) W. Klaiber, (Bibel-) Übersetzen - eine unmögliche Aufgabe?, 475. 이상훈, “성서번역을 위한 해석학적 긴장 문제”, 『성경원문연구』 2(1998년 2월), 7-18도 참조.

6) 이하는 W. Klaiber, “(Bibel-)Übersetzen - eine unmögliche Aufgabe?”, 476-477의 a)항을 요약한 것이다.

7) 더 거슬러 올라가면 초대 교회에서는 그리스어 번역 구약성서인 칠십인역(LXX)이었고,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는 라틴어 번역 성서(Vulgata)가 그런 역할을 했다.

으로는 그 둘을 적당하게 혼합하여 의미를 전달하려는 번역이다. 우리말 번역 성경들 중에서 첫 번째 범주에 속하는 것이 개역성경이고, 두 번째 범주에 속하는 것이 『공동번역』 성경이라면, (표준)새번역 성경은 마지막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어느 번역이 가장 적절한 것이냐는 간단히 대답할 수 없다. 그 세 종류의 번역 모두가 원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할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끊임 없이 새로운 번역의 시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새로운 번역의 시도에는 어쩔 수 없이 해석의 손길이 가미되지 않을 수 없다. 원문의 언어와 구조에 충실한 것도 좋지만, 현대 독자들의 이해 가능성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원문이 서 있는 문화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현대인들에게 들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원문에 있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동일한 의미를 전달해주는 현대적인 개념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이나 저것이나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모든 방식을 동원해서 원문의 정경적인 권위와 의미를 살리면서도, 현대인들에게 이해될 수 있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언어와 개념 그리고 의미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단순히 원문의 개념과 언어를 그대로 옮겨 놓아서 (Trans-Lation; Über-Setzen) 현대인들에게 원문의 의미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원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의미를 찾아내서 현대인에게 전달해주는 중매자의 역할(Inter-Pretation)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러한 번역과 해석의 역동적인 관계와 많은 문제들을 염두에 두면서 골로새서의 두 가지의 예시적인 구절들을 통해서 번역과 해석에 얽혀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골로새서 전체를 이런 시각으로 보면, 거의 모든 구절의 번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지면 관계로 인하여 우리는 골로새서의 이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면서 동시에 중대한 번역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구절만을 분석하면서 새로운 번역의 가능성을 모색해보려고 한다.

2. 골로새서 1:24

골로새서가 바울의 저작이냐 제2바울 서신이냐 하는 논란은 서신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그런 신학적인 논란은 곧바로 성경 본문에 대한 번역과 이해의 문제로 연결된다. 1:24가 그 대표적인 구절이다. 일반적인 서신의 구조형식에 따라서 골로새서도 발신자, 수신자 및 서두 인사와 감사의 말씀을 한 후에 본론을 시작하는 1:15-20에서 당시에 널리 알려진 그리스도 송가를

인용하고, 1:21-23에서 그 송가의 신학을 독자들에게 적용한다. 그런 후에 이어지는 1:24-2:5는 “바울”에 대한 특별한 해설을 하고 있다. 이러한 특별 해설을 시작하는 24절에는 커다란 번역과 해석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⁸⁾ 24절의 그리스어 본문과 이에 대한 우리말 성경들의 번역을 먼저 비교해보자.

NGT²⁷

α) νῦν χαίρω ἐν τοῖς παθήμασιν ὑπὲρ ὑμῶν

β) καὶ ἀνταναπληρῶ τὰ ὑστερήματα τῶν θλίψεων τοῦ Χριστοῦ ἐν τῇ

σαρκί μου

γ) ὑπὲρ τοῦ σώματος αὐτοῦ, ὃ ἐστὶν ἡ ἐκκλησία,

『개역개정』(1998년)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
라

『공동개정』(1999년)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꺼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표준』(1993년)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을 즐겁게 여기고 있으며,

그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
가고 있습니다.⁹⁾

우선 그리스어 원문에 비교해서 우리말 성경들은 모두가 β)와 γ)를 혼합해서 번역한다. 『공동번역』 성경만이 원문의 νῦν을 “그래서”로 번역하고, 나머지는 모두 “이제”로 번역한다. 그럼으로써 『공동번역』 성경은 24절을 앞의 23절과 논리적으로 연결해보려고 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볼드체로 된 부분의

8) 1:24는 골로새서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구절에 속한다. 1956년에 크레머(J. Kremer)는 이 구절에 대한 연구사를 단행본으로 집필하였지만(*Was an den Leiden Christi noch mangelt. Eine interpretationsgeschichtliche und exegetische Untersuchung zu Kol 1.24b, BBB 12, Bonn*), 그 이후로도 학자들은 여전히 명확한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해석의 모델들에 대해서는 J. Ernst, *Die Briefe an die Philipper, an Philemon, an die Kolosser, an die Epheser* (Regensburg: Verlag Friedrich Pustet, 1974), 184-187; 진경연, 『골로새서·빌레몬서』, 대한기독교서회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43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190-194 참조.

9) 『새번역』(2001년)도 『표준』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번역과 의미이다. 간단히 말하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육체로 “채워” 완성한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단순히 번역 성경을 읽는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바울이 그 부족한 부분을 마저 채워서 완성시켰다고 이해할 수 있다. 만일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하며, 거기에 바울의 고난이 더해짐으로써 비로소 온전한 구원 사건이 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번역이나 이해가 원문에 충실한 것인가? 과연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불충분한 것이라고 말하는가? 바울의 고난이 비로소 그리스도의 불안정한 고난을 완전하게 한 것인가? 24절의 번역과 이해를 위해서 우리는 이 구절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되, 특히 볼드체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α)와 β)가 거의 동의어로 볼 수 있는 상이한 두 단어($\piαθήμα$; $θλίψις$)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우리말 번역 성경들은 “괴로움, 고통, 고난”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하며, α)의 $\acute{\upsilon}\pi\epsilon\rho\ \acute{\upsilon}\mu\acute{\omega}\nu$ 이 γ)에서는 보다 길게 설명되고 있다는 것이다. 올바른 번역과 해석이 이러한 언어, 개념, 문체, 문법 그리고 구조에 주목해야 한다면, 1:24는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 예가 될 수 있다.

2.1. $\nu\acute{\upsilon}\nu\ \chiαί\rho\omega\ \acute{\epsilon}\nu\ \tau\omicron\iota\varsigma\ \piαθήμασιν\ \acute{\upsilon}\pi\epsilon\rho\ \acute{\upsilon}\mu\acute{\omega}\nu$

우리말 번역 성경들은 $\acute{\epsilon}\nu\ \tau\omicron\iota\varsigma\ \piαθήμασιν$ 을 목적어로 보고, “괴로움을”(개역개정) 혹은 “고통을”(공동번역) 혹은 “고난 받는 것을”(표준새번역) 기뻐한다고 번역한다. 그러나 그리스어 본문은 전치사 구로서 대다수의 영어 번역이나 독일어 번역 성경들처럼 “괴로움 가운데서 기뻐한다.”라고 번역해야 더 의미가 절실흐진다. 사도는 괴로움을 즐기거나 기뻐하지 않는다. 괴로움은 어디까지나 괴로움일 뿐이지만, 그것이 성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고난의 한 복판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따름이다. 그것이 교회를 위한 대리적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사도의 모습을 더 절절하게 부각하려는 본문의 의도에 합당하다. β)에서는 고난을 위하여 $θλίψις$ 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바울의 $\piαθήμα$ 를 말한다. 바로 여기에 본문 이해의 열쇠가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할 것이다.

바울의 고난의 대상을 “너희를 위한”($\acute{\upsilon}\pi\epsilon\rho\ \acute{\upsilon}\mu\acute{\omega}\nu$)이라고 하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그러므로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대리적인 고난을 당하는 중에 기뻐하고 있다. “너희를 위한”($\acute{\upsilon}\pi\epsilon\rho\ \acute{\upsilon}\mu\acute{\omega}\nu$)은 특히 성만찬 전승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죄인들을 위한 대리적인 고난이라고 말한다(고전 11:24). 다른 곳에

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대리적인 고난이라고 더 자주 말한다(살전 5:10; 고전 15:3; 갈 3:13; 롬 5:8; 8:32; “모든 사람을 위하여”를 말하는 고린도후서 5:14-15와 “그 사람을 위하여”를 말하는 롬 14:15 등도 참조). “너희를 위한” 혹은 “우리를 위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대리적인 죽음으로 말하는 전형적인 전치사 표현이다. 그런데 24절에서는 바울의 고난을 “너희를 위한” 고난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바울의 고난을 교회를 대리하는 고난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드러낸다. 이를 특히 바울의 대리적인 고난을 부정하는 고린도전서 1:13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더 분명해진다. 고린도전서 1:13에서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이고 바울 자신이 아니라고 한다. 반대로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바울의 고난이 교회를 위한 대리적인 고난으로 나란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에서 바울의 고난은 이미 복음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교회를 위한(ὑπὲρ)” 바울의 대리적인 고난이라는 생각은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비교해서 골로새서가 보여주는 “새로운 것”이다.¹⁰⁾

2.2. καὶ ἀνταναπληρῶ τὰ ὑστερήματα τῶν θλίψεων τοῦ Χριστοῦ ἐν τῇ σαρκί μου

바울의 대리적인 고난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된다. 이 부분을 영어 번역 성경들은 비교적 다양하게 번역하는데¹¹⁾ 반해서 우리말 번역 성경들은 거의 동일하게 번역한다. ἀνταναπληρῶ를 “채우다” 혹은 “채워가고 있다”로 번역하고, τὰ ὑστερήματα τῶν θλίψεων τοῦ Χριστοῦ를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번역한다. 천주교 200주년 기념 신약성서는 “내 육신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 수난의 부족한 것을 마저 채웁니다.”라고 “마저”를 강조의 의미로 첨가해서 번역하고¹²⁾ 각주에서 “예수의 십자가 수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 A. Standhartinger, *Studien zur Entstehungsgeschichte und Intention des Kolosserbriefs* (Leiden: Brill Academic Press, 1999), 164.

11) KJV: and fill up that which is behind of the afflictions of Christ in my flesh
 ASV: and fill up on my part that which is lacking of the afflictions of Christ in my flesh
 NIV: and I fill up in my flesh what is still lacking in regard to Christ's afflictions,
 TEV: for by means of my physical sufferings I am helping to complete what still remains of Christ's sufferings

CEV: in my own body I can continue the suffering of Christ
 Lutherbibel: und erstatte an meinem Fleisch, was an den Leiden Christi noch fehlt,
 Einheitübersetzung: ergänze ich in meinem irdischen Leben das, was an den Leiden Christi noch fehlt.

12) 이는 영어번역의 “still”이나(NIV, TEV) 독일번역의 “noch”에 해당한다. 그리스어 본문은 분명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겪는 고난을 말하고 있다”라고 부연해서 해설한다. 그러나 이 부연설명이 본문의 번역과 해석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암시한다.

2.2.1. 이중 복합동사 ἀνταναπληρῶ와 결합된 τὰ ὑστερήματα를 우리말 성경들이 “남은”으로 번역한 것은 정당한가? τὰ ὑστερήματα는 중성복수 대격이다. 여기서 이 명사를 “남은”이라는 형용사로 번역하는 것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경으로 하여금 성경을 번역하고 해석하게 하라는 원칙에 따라서 동사 ἀνταναπληρῶ와 그 목적어 τὰ ὑστερήματα가 결합되어 사용되는 비슷한 사례가 성경에 특히 바울의 서신들에서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의 본문 번역과 해석에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의 주요 서신들에는 네 곳에서 그 사례를 찾을 수 있다.

고전 16:17 χαίρω δὲ ἐπὶ τῇ παρουσίᾳ Στεφανῆ καὶ Φορτουνάτου καὶ Ἀχαϊκοῦ, ὅτι τὸ ὑμέτερον ὑστέρημα οὗτοι ἀνεπλήρωσαν.

스데바나, 브르나도, 아가이고 등이 고린도 교회를 대신해서 바울에게 옴으로써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다. “너희의 부족한 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비어 있는 자리이고, 이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전체를 보고 싶지만, 그 몇 사람의 대표들을 뵈으로써 교회 전체를 대신 보는 것으로 생각하며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리움을 그들이 채워주었다는 뜻이다.¹³⁾ 그러므로 그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인격적으로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

빌 2:30 ὅτι διὰ τὸ ἔργον Χριστοῦ μέχρι θανάτου ἠγγισεν παραβολευσάμενος τῇ ψυχῇ, ἵνα ἀναπληρώσῃ τὸ ὑμῶν ὑστέρημα τῆς πρὸς με λειτουργίας.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하고 죽을 병에 걸렸던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섬겨야 할 너희(빌립보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대신해서 “채워주었다.” 여기서 τὸ ὑμῶν ὑστέρημα는 이어지는 수식어 τῆς πρὸς με λειτουργίας에 의해서

히 τὰ ὑστερήματα τῶν θλίψεων τοῦ Χριστοῦ를 말하는데, 천주교의 번역에서는 τοῦ Χριστοῦ를 “그”라고 번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3) 김지철, 『고린도전서』, 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38(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640; 박익수, 『고린도전서 주석. 누가 과연 참 그리스도인인가』(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508. 그러나 여기서도 ὑμέτερον을 주체적으로 볼 것이냐, 대상적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번역과 의미가 전혀 달라진다. 그 논란에 대해서는 W. Schrage, *Der erste Brief an die Korinther(1Kor 15,1-16,24)*, EKK VII/4 (Zürich; Düsseldorf: Benzinger; Neukirchener: Neukirchener Verl. 2001), 457-458과 각주 190, 191, 192 참조.

그 의미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τὸ ὑστέρημα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섬기는 데 “부족한 부분”, 구체적으로는 바울에게 보내 준 헌금을 말하며, 에바브로디도는 그 헌금을 전달해줌으로써 빌립보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대신해서 채웠다.

고후 9:12 ὅτι ἡ διακονία τῆς λειτουργίας ταύτης οὐ μόνον ἐστὶν προσαναπληροῦσα τὰ ὑστερήματα τῶν ἁγίων, ἀλλὰ καὶ περισσεύουσα διὰ πολλῶν εὐχαριστιῶν τῷ θεῷ.

이중 복합동사의 분사 προσαναπληροῦσα와 함께 사용된 복수 τὰ ὑστερήματα는 이어지는 수식어 τῶν ἁγίων에 의해서 의미가 결정된다.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함으로써 “성도들의 궁핍을” 그들을 대신해서 채우는 봉사를 한 것이다.

고후 11:9 καὶ παρὼν πρὸς ὑμᾶς καὶ ὑστερηθεὶς οὐ κατενάρκησα οὐθενός· τὸ γὰρ ὑστέρημά μου προσανεπλήρωσαν οἱ ἀδελφοὶ ἐλθόντες ἀπὸ Μακεδονίας, καὶ ἐν παντὶ ἀβαρῆ ἑμαυτὸν ὑμῖν ἐτήρησα καὶ τηρήσω.

바울이 고린도에서 선교를 할 때, 고린도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않은 것은, 마케도니아 지방의 교회들이 바울의 “부족한 것”을 대신해서 “보충해주었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단수 τὸ ὑστέρημα는 고린도후서 9:12에서처럼 이중 복합동사와 결합해서 “부족한 것”을 말한다.

바울은 때로는 단순 복합동사 ἀναπληρω를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중 복합동사 προσ-ἀναπληρω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골로새서 1:24는 이중 복합동사 ἀντ-ἀναπληρω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바울의 구절들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들 동사들 사이에는 큰 의미상의 차이는 없다. 이 동사들은 단순히 “채우다”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대리해서 채우다” 혹은 “보충해서 완성하다”로 번역하는 것이 정확하다.¹⁴⁾ 이처럼 특이한 복합동사와 τὸ ὑστέρημα 혹은 그 복수형과 결합된 표현은 바울 서신 외의 고대 문헌에서는 비슷한 용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바울의 전형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고, 골로새서 저자도 바울에게서 이 표현을 빌려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¹⁵⁾ τὸ ὑστέρημα는 위에서 인용한 바울의 서신들에서는 항상 동사의 목적어로 사용되어서, 때로는 인격적인 차원에서, 때로는 물

14) Ernst G. Hoffmann/Heinrich v. Siebenthal, *Griechische Grammatik zum Neuen Testament*, Riehen/Schweiz: Immanuel-Verlag 1985, § 184, d: “in Stellvertretung ausfüllen”; G. Delling, *πληρης κτλ. ThNWT VI*, 305.

15) A. Standhartinger, *Studien zur Entstehungsgeschichte und Intention des Kolosserbriefs*, 131.

질적인 차원에서 “부족한 것” 혹은 “궁핍”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골로새서 1:24의 ἀνταναπληρῶ τὰ ὑστερήματα는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서(대신해서) 채우다 혹은 완성하다”로 번역할 수 있고,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말 성경들이 형용사 “남은”으로 번역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2.2. 더 중요한 것은, 부족한 것이 무엇이나 하는 점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울 서신들에 나오는 표현들에서 부족하거나 궁핍한 내용이나 대상이 속격 표현으로 나오는 것과 동일하게 골로새서 1:24에서도 부족한 것의 내용은 τῶν θλίψεων τοῦ Χριστοῦ이라는 속격 표현으로 제시된다.

θλίψις의 복수 속격인 τῶν θλίψεων과 역시 속격 τοῦ Χριστοῦ가 결합된 표현 τῶν θλίψεων τοῦ Χριστοῦ을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의 이름으로 기록된 서신들에서만 아니라, 신약성서의 어느 문헌에서도 θλίψις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기 위해서 τοῦ Χριστοῦ와 결합되어 사용된 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그리스도의”(τοῦ Χριστοῦ) 고난을 말할 때에는 θλίψις가 아니라 παθήματα가 사용된다(예: 고후 1:5; 빌 3:10). 신약성서에서 θλίψις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니라, 성도들의 “환난”이나 “곤고”(롬 5:3; 고후 1:4.8; 요 16:33) 혹은 종말의 “환난”을 말한다(마 24:9.21.29; 막 13:19.24). 과거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환난”을 당했고(행 7:1),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환난”을 당하게 된다(롬 2:9).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할 때에는 παθήματα를 주로 사용하고, 바울 자신을 포함한 성도들의 환난을 말할 때에는 θλίψις를 사용함으로써 두 개념을 분명히 구분한다. 특히 고린도후서 1:4-11과 우리의 본문을 비교해보면 특이한 사실이 드러난다. 고린도후서의 단락에는 괴로움과 고난으로 번역된 두 개의 그리스어 단어들인 모두 사용되는데, 골로새서 1:24와는 반대로, θλίψις는 “우리” 곧 사도의 환난을 말하고, 고린도후서 1:5에서 παθήματα는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τὰ παθήματα τοῦ Χριστοῦ εἰς ἡμᾶς)을 말한다. 그러므로 바울이 구분해서 사용했던 두 그리스어 단어들인 골로새서는 정반대로 뒤바뀌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다. 바울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구원론적으로 유효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할 때 παθήματα를 사용하고, 성도들의 실존적인 환난이나 종말론적인 고난을 말할 때에는 θλίψις를 말한다.¹⁶⁾ 반면에 골로새서에서 구원론적인 παθήματα가 바울에게 적용되었다면, 이는 이미 바울의 죽음을 과거의 일 이면서도 동시에 구원사적인 사건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

16) 전경연, 『골로새서·빌레몬서』, 190. 이 두 개념의 의미상의 차이가 없다고 말한 것은 τοῦ Χριστοῦ와 결합된 표현을 생각하지 못한데서 온 결론이다.

다.17) 그리스도의 고난(παθήματα)과 바울의 환난(παθήματα) 사이에는 깊은 연결이 있다. 이는 이미 죽고 없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받은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포함된, 그러므로 복음의 한 부분으로 승화된 채로 이해되었다는 증거이다. 더구나 본문이 서 있는 단락(1:24-2:5)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사도적인 사역을 해설하려는 데 강조점이 찍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바울이 성도의 실존적인 환난을 말할 때 사용했던 θλίψις가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τῶν θλίψεων τοῦ Χριστοῦ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말하는가? 바울의 언어사용에 입각해서 생각한다면, θλίψις의 복수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는 결론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면 속격 τοῦ Χριστοῦ를 어떻게 이해하고 번역해야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직역하면 당연히 “그리스도의”가 되겠지만, 이 속격을 어떤 속격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나온다. 먼저 주어적인 속격 (Gen. subj.)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을 말한다. 그러나 반대로 대상적인 속격(Gen. obj.)으로 볼 경우에는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 혹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말한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이 속격을 주어적인 속격으로 볼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불완전하다는 엄청난 교리적-해석상의 문제가 생겨나며,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할 때에는 주로 παθήματα를 사용한다는 사실과도 불일치한다는 점에 주목을 했다. 그러므로 문법적으로는 주어적인 속격으로의 번역이 가능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대상적인 속격으로만 번역될 수 있을 뿐이다.

τοῦ Χριστοῦ를 대상적인 속격으로 볼 경우에 그리스도는 θλίψις의 주체가 아니라, 원인이다.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고난을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τῶν θλίψεων τοῦ Χριστοῦ를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골로새서 저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완벽한 구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며, 그것을 의심하고 다른 영적인 존재들을 더 섬겨야 한다고 유포하는 거짓 교사들에 맞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18) 그들이 그리스

17) 살아 있는 사람의 고난을 구원론적인 차원으로 말할 수는 없다. 골로새서 1:24이하에서 바울의 죽음이 암시되어 있다고 보는 학자들은 많이 있다. M. C. de Boer, “Images of Paul in the Post-Apostolic Period”, *CBQ* 42 (1980), 368-369; C. M. Nielsen, “The Status of Paul and his Letters in Colossians”, *PRSt* 12 (1985), 111-114; A. Standhartinger, *Studien zur Entstehungsgeschichte und Intention des Kolosserbriefs*, 162-175.

18) 조경철, “골로새서에 나타난 ‘철학’과 ‘바울의 복음’”, 『신학과 세계』 61(2008년 봄), 34-57 참조.

도의 구원 사역에 부족함이 있고, 그것은 다른 영적인 존재들을 숭배함으로써 채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면, 이에 맞서서 서신의 저자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완전을 강조한다. 그런 저자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부족함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τῶν θλίψεων τοῦ Χριστοῦ는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이 아니라, 사도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환난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τοῦ Χριστοῦ를 주어적인 속격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하나 남아 있다. 이 경우에 “그리스도가 맡겨 놓은(혹은 부탁하신) 환난”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난”(θλίψις)은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맡겨 놓으신 선교적인 삶의 성격을 말하며, 그러므로 대상적인 속격으로 이해하는 것과 내용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룩하신 구원을 온 천하 만민들이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선포하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고,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삶은 주님의 뒤를 따르는 환난의 삶일 수밖에 없다. 이는 바울이 사도로서의 자기의 삶에 대한 이해와 일치하고, θλίψις의 의미와도 일치한다. 골로새서의 시각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고난을 감당했고, 그래서 그는 순교의 죽음을 당하였다.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바울의 θλίψις만이 아니라, παθήμα까지도 말할 수 있다. 바울은 주님께서 부탁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환난(θλίψις)을 감당하였고,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환난은 구원론적인 고난(παθήμα)의 차원을 갖게 되었다.

τοῦ Χριστοῦ를 달리 이해하려는 또 다른 시도가 있는데, 앞에서 인용한 천주교 200주년 기념 신약성서에서 볼 수 있다. 이 번역 성서는 24절을 “내 육신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 수난의 부족한 것을 마저 채웁니다.”라고 번역하고, 각주에 “예수의 십자가 수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겪는 고난을 말하고 있다”라고 부연해서 설명한다.¹⁹⁾ 이러한 부연 설명은 τοῦ Χριστοῦ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것은 τοῦ Χριστοῦ를 24c절에서 교회를 의미하는 “그의 몸”과 동일시하려는 것이다. 이는 다시 골로새서가 서두에 인용하고 있는 그리스도 송가에 της εκκλησιας를 삼입해서 της σωματος와 동일시하려고 했던 것과 같은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면, 그냥 τοῦ Χριστοῦ도 연합체적인 인격(corporate personality)으로서 몸 곧 교회를 의미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θλίψεων τοῦ Χριστοῦ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겪는 고난”으로 이해할 수 있고,

19) A. Standhartinger, *Studien zur Entstehungsgeschichte und Intention des Kolosserbriefs*, 168도 이러한 이해를 지지하며, J. Kremer, Art. θλίψις κτλ. *EWNT II*, 378-379도 의문부호를 통해서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24절 전체는, 골로새 교회가 겪어야 할 고난의 나머지 부분들을 바울이 그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대신 감당함으로써 교회로 하여금 고난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²⁰⁾ 그러나 이것은 해석으로서의 가능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번역으로서의 가능성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모든 해석의 가능성들을 하나로 묶어서 번역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다.

2.2.3. 종합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24절의 문장 구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α) νῦν χαίρω ἐν τοῖς παθήμασιν ὑπὲρ ὑμῶν

β) καὶ ἀνταναπληρῶ τὰ ὑστερήματα τῶν θλίψεων τοῦ Χριστοῦ ἐν τῇ σαρκί μου

γ) ὑπὲρ τοῦ σώματος αὐτοῦ,
ὃ ἐστὶν ἡ ἐκκλησία,

α)의 밑줄친 전치사 구문(ἐν τοῖς παθήμασιν)과 β)는 내용적으로 일치한다. 둘 모두 바울의 순교적인 죽음의 고난을 말한다. β)는 바울의 θλίψις가 παθήμα로 승화되는 과정을 설명하며, α)의 전치사 구문은 β)의 설명을 간단히 요약한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부탁한 혹은 그리스도 때문에 받아야 할 고난의 삶(θλίψις)을 그의 육체로 받아 채우면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바울 이후 시대의 바울교회들에게 그의 죽음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건에 포함된 구원사적인 의미를 갖는 고난(παθήμα)의 사건이 되었다. 그리고 α)의 마지막에 있는 전치사 구문(ὑπὲρ ὑμῶν)은 역시 ὑπὲρ로 시작하는 γ)와 내용적으로 일치한다. β)에서는 골로새 성도들을 의미하는 “너희”가 γ)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언급됨으로써 개체 교회를 넘어서 보편적인 교회로 확장되었다는 점이 차이일 수 있다. 개체교회이든 보편적인 교회이든 모두가 그리스도가 부탁한 고난을 감당한 바울의 순교에 힘입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 혹은 “너희”를 위한 것이듯이,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순교의 고난을 감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바울의 고난(θλίψις)은 그리스도의 고난(παθήμα)에 포함된 구원의 사건이었다. 1:24는 바울의 순교적인 죽음을 전제하고, 그의 고난을 회상하면서 구원사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20) A. Lindemann, *Der Kolosserbrief* ZBK.NT 10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1983), 31-32 참조.

2.3. 번역의 제안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받는 고난 가운데서 기뻐합니다. 그러므로(21) 나는 그리스도가 부탁한(혹은 그리스도 때문에 받아야 하는) 환난의 남겨진 것(삶)을 내 육체를 통해서, 교회가 되는 그의 몸을 위하여, 대신하여 완수합니다.

3. 골로새서 2:18

앞에서 살펴본 1:24가 골로새서의 저자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서 있다면, 이제부터 살펴볼 2:18은 골로새서의 저작 의도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많은 학자들은 골로새서가 골로새교회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에 맞서서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로부터 전해진 복음에 굳게 서 있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에 맞서서 골로새서에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논쟁이 별로 없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오는 박해와 세속화의 위협 속에서 교회로 하여금 신앙을 굳게 지키도록 권고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²²⁾ 이들의 주장에서 2:18은 각기 핵심적인 인증구절로서 작용을 한다. 또한 번역과 해석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의 근거는 이 구절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18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러므로 번역하기도 어려운 구절이며, 그러므로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해석과 번역이 엇갈린다. 먼저 그리스어 본문과 우리말 번역 성경의 본문들을 비교해보자.

NTG²⁷

α) μηδεὶς ὑμᾶς καταβραβεύετω

β) θέλων ἐν ταπεινοφροσύνῃ καὶ θρησκείᾳ τῶν ἀγγέλων,

γ) ἃ ἑώρακεν ἐμβατεύων, εἰκῆ φυσιοῦμενος ὑπὸ τοῦ νοῦς τῆς σαρκὸς αὐτοῦ.

『개역개정』

21) και를 “그러므로”로 번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Ernst G. Hoffmann/Heinrich v. Siebenthal, *Griechische Grammatik zum Neuen Testament*, § 252,29 참조.

22) 이런 주장은 M. D. Hooker, “Were There False Teachers in Colossae?”, B. Lindars and S. S., Smally, eds., *Christ and Spirit in the New Testa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1973), 315-331; 특히 최근에 A. Standhartinger의 앞의 책은 다시 이런 주장을 강력하게 제기하며 논증한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공동개정』

여러분은 겸손한 체하거나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속아서 여러분이 받을 상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보이는 것에만 정신을 팔고 세속적인 생각으로 헛된 교만에 부풀어 있습니다.

『표준』

남들이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까닭 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먼저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18절은 역시 이단논쟁에서 중요한 구절로 작용하는 2:16-17과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다. 불특정한 단수 주어 μηδείς로 시작해서 명령 동사, εν 구문 그리고 관계대명사(α) 문장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동일하다. α)가 주문장이고, β)와 γ)는 분사구문으로써 주문장을 보충하여 설명한다. α)는 18절 전체의 주어(μηδείς), 목적어(ὕμᾱς), 주동사(καταβραβεύετω)를 가진 핵심 문장이다. β)와 γ)는 α)의 주어에 걸리는 분사구문으로서 번역상의 문제는 주로 이곳에 도사리고 있다. 바울과 바울의 전통에 굳건히 서 있는 바른 신앙의 지도자들 외에는 누구도 골로새 성도들의 신앙의 경주에서 심판관이 되게 해서는 안되는데(α). 그 이유가 β)와 γ)에서 제시된다. 이러한 본문의 번역과 해석에 있어서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α) 문장의 불특정한 주어, β)를 시작하는 분사 θέλων과 결합된 전치사 구문 εν ταπεινοφροσύνη καὶ θρησκείᾳ τῶν ἀγγέλων, 그리고 γ)의 관계대명사 문장 ἃ ἑώρακεν ἑμβατεύων 등이다.

3.1. 첫 번째 번역의 문제는 α)의 불특정한 주어와 이어지는 β)의 εν 전치사 구문에서 생긴다. 이 전치사 표현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우리말 『개역개정판』 성경은 16:18절의 전치사를 다같이 “이유로”로 번역하고, 『공동번역』과 『표준새번역』 성경은 16절에서는 “문제로”로 번역하고, 18절에서는 분사(θέλων)와 결합해서 “속아서”와 “주장하면서”로 각기 번역한다. 그렇다면 심판(16절)이나 정죄(18절) 받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전치사 표현으로 제시된 것으로 분석하고 번역하는 것이다. 불특정 주어(μηδείς)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가?

『공동번역』 성경은 “속아서”를 통해서, 『표준새번역』 성경은 “주장하면서”라고 번역함으로써, 그리고 『개역개정』 성경은 “꾸며낸”을 통해서 이 불특정 주어와 거짓 교사들이라고 암시한다. 분사 $\theta\acute{\epsilon}\lambda\omega\upsilon\eta$ 는 “원하다” 혹은 “좋아하다”는 기본 뜻을 가지고 있으며 “꾸며낸”이나 “체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즐겨” 혹은 “악의적으로”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²³⁾ $\theta\acute{\epsilon}\lambda\omega\upsilon\eta$ 는 고전 그리스어에서 “정죄하다”나 “비난하다” 등과 같은 말하는 행위를 뜻하는 동사와 결합해서 사용되는 예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말하는 행위의 동기를 나타내기 때문이다.²⁴⁾ 그렇다면, 18절의 α)와 β)는 다음과 같이 번역될 수 있다. “누구도 너희를 ... 악의적으로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다음으로 β)의 $\epsilon\nu$ ταπεινοφροσύνη καὶ θρησκεία τῶν ἀγγέλων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결국 번역과 해석은 이 표현은 골로새에 나타난 이단자들의 주장으로 볼 것이냐 여부에서 갈리게 된다. $\epsilon\nu$ 전치사 표현을 『개역개정』 성경처럼 “이유로” 번역하면, “겸손과 천사 숭배 등을 이유로 해서 누구도 너희를 악의적으로 정죄하지 않게 하라”가 된다. 코이네 그리스어에서 전치사 $\epsilon\nu$ 는 원인이나 도구적인 여격과 비슷하게 사용될 수 있다.²⁵⁾ 그러나 이 경우에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누구의 행위로 볼 것이냐는 문제가 생긴다. 오늘날 대다수의 번역 성경들과 주석서들은 겸손과 천사 숭배를 거짓 교사들의 행위와 주장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왜 거짓 교사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저자가 불특정 단수 주어를 사용했는지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²⁶⁾ 그래서 겸손과 천사 숭배 등을 골로새 성도들이 실천한 종교적인 행위로 보고, “누구도 너희를 너희의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정죄하지 않게 하라”로 번역할 수 있다.²⁷⁾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epsilon\nu$ 전치사의 고유의 의미(시간적으로 “...때”; 공간적으로는 “...안에”)를 그대로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 $\epsilon\nu$ 전치사 구문은 이유를 나타내는 의미가 아니라, 정죄나 심판이 일어나는 시간이나 공간을 나타낸다. “누군가 겸손과 천사 숭배의 시간이나 공간에서 너희

23) Blass/Debrunner/Rehkopf, *Grammatik des Neutestamentlichen Griechisch*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4¹⁶), § 148,3; 418,7 참조.

24) A. Fridrichsen, $\theta\epsilon\lambda\omega\upsilon\eta$ Col 2,18, *ZNW* 22(1922), 135-137; T. W. Martin, *By Philosophy and Empty Deceit: Colossians as Response to a Cynic Critique*, *JSNT.S* 118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137-139; A. Standhartinger, *Studien zur Entstehungsgeschichte und Intention des Kolosserbriefs*, 188.

25) Ernst G. Hoffmann und Heinrich von Siebental, *Griechische Grammatik zum Neuen Testament*, § 184i β ; 269-270; Blass/Debrunner/Rehkopf, *Grammatik des Neutestamentlichen Griechisch*, § 195-196.

26) A. Standhartinger, *Studien zur Entstehungsgeschichte und Intention des Kolosserbriefs*, 이 책 곳곳에서 이를 이유로 골로새서에 거짓 교사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27) Martin, *By Philosophy and Empty Deceit: Colossians as Response to a Cynic Critique*, 116 각주 1.

를 정죄하지 않게 하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경우에 겸손과 천사 숭배는 이단자들의 실천과 주장이 아니라, 골로새 성도들의 종교적인 실천을 말한다. 교회의 예배가 일어나는 시간이나 공간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²⁸⁾

3.2. 내용적으로 *ταπεινοφροσύνη καὶ θρησκεία τῶν ἀγγέλων*를 어떻게 번역하고 이해할 것인가? 속격 *τῶν ἀγγέλων*을 *ταπεινοφροσύνη καὶ θρησκεία* 모두에게 걸리는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분리해서 *θρησκεία*에만 걸리는 것으로 볼 것인가? 또한 *τῶν ἀγγέλων*을 주체적 속격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대상적 속격으로 볼 것인가? 대상적인 속격으로 보면 인간들이 천사들을 숭배한다는 뜻이고, 주체적인 속격으로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숭배한다는 뜻이다. 후자의 경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기에는 당시 종교적인 환상의 체험을 배경으로 하는 이단자들의 주장을 본다.²⁹⁾ 이는 아래에서 살펴볼 ἄ ἑώρακεν ἑμβατεύων의 해석이나 번역과도 직결되어 있다.

골로새서에서 이단 논쟁을 보려는 대다수의 학자들과 번역 성경들은 *ταπεινοφροσύνη*를 3:12의 덕목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본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처럼 “꾸며낸”과 결합시킨다. 그들은 2:23에서와는 전혀 다르게 이 개념을 이단자들의 금욕주의의 실천으로 이해한다.³⁰⁾ 그런 종교적인 금욕주의를 실천함으로써 하늘의 환상을 경험할 수 있다고 골로새에 나타난 철학자들이 주장했다는 것이다. *τῶν ἀγγέλων*을 *ταπεινοφροσύνη καὶ θρησκεία* 모두에게 걸리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ταπεινοφροσύνη*를 천사들이 하늘에서 예배를 드릴 때 취하는 태도로 해석한다.³¹⁾ 그러나 *ταπεινοφροσύνη*는 사람의 금욕적인 실천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하여튼 이들은 당연히 *τῶν ἀγγέλων*을 주체적인 속격으로 본다. 거짓 교사들이 종교적인 금욕을 통해서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을 환상으로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그런 환상 경험에 근거해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위를 내세워 골로새 성도들을 유혹했다. 그러나 서신의 저자는 그런 주장은 그들의 육신적인 생각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28) A. Standhartinger, *Studien zur Entstehungsgeschichte und Intention des Kolosserbriefs*, 189.

29) F. Francis, “Humility and Angelic Worship in Col. 2:18”, F. Francis and W. Meeks, eds., *Conflict at Colossae* (Missoula: Scholars Press, 1975); C. Rowland, “Apocalyptic Visions and the Exaltation of Christians in the Letter to the Colossians”, *JSNT* 19 (1983), 73-83; T. Sappington, *Revelation and Redemption at Colossae*, JSNT.S 53 (Sheffield: JSOT Press, 1991) 등.

30) 대다수의 주석서들 외에도 Francis, “Humility and Angelic Worship in Col. 2:18”, 167-171; Sappington, *Revelation and Redemption at Colossae*, 151-153 등.

31) Rowland, *Apocalyptic Visions*, 74-75.

그러나 골로새서에서 이단 논쟁이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18절은 이단자들의 어떤 종교적인 환상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의 예배를 말한다고 하며, τῶν ἀγγέλων을 대상적인 속격으로 보고, ταπεινοφροσύνη καὶ θρησκεία을 구분한다.³²⁾ 골로새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겸손한 자세를 가졌고, 천사들을 숭배하였다. 그들의 예배에 들어온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비판했다. 물론 이 경우 “누군가”는 거짓 교사들이 아니라, 교회의 예배에 참석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³³⁾ 골로새 성도들은 이런 예배의 시간에 다른 사람들의 비판이나 정죄를 받지 않게 해야 한다.

3.3.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이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로 번역한 표현(ἐώρακεν ἐμβατεύων)은 번역과 이해가 쉽지 않으며,³⁴⁾ 거의 모든 번역 성서들이 각기 다르게 번역한다.

『개역개정』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공동개정』 그들은 보이는 것에만 정신을 팔고
 『표준』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KJV: intruding into those things which he hath not seen
 ASV: dwelling in the things which he hath seen
 NIV: Such a person goes into great detail about what he has seen
 TEV: who claims to be superior because of special visions
 CEV: They brag about seeing visions
 REV: access to some visionary world
 Lutherbibel: sich dessen rühmt, was er geschaut hat
 Einheitsübersetzung: der mit Visionen prahlt
 천주교200주년 기념 신약성서: 그런 자는 (자신의 육적인 정신으로 헛
 되어 들뜬 나머지) 그런 것들을 보고 거기에 빠져 버렸으니
 전경연 주석: 봉헌식 때에 환상으로 본³⁵⁾
 슈바이처 주석: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봉헌식에 임하여 그런 것들을

32) C. E. Arnold, *The Colossian Syncretism: The Interface Between Christianity and Folk Belief at Colossae* (Tübingen: J. C. B. Mohr, 1995), 90-100에 의하면, 그리스어 문헌에서 θρησκεία 결합된 속격은 대다수가 대상적인 속격으로 사용되었다.

33) 이런 이해는 R. E. DeMaris, *The Colossians Controversy: Wisdom in Dispute at Colossae*, JSNT.S 96 (Sheffield: JSOT Press, 1994), 59-63; A. Standhartinger, *Studien zur Entstehungsgeschichte und Intention des Kolosserbriefs*, 22-23.

34) J. Gnllka, *Der Kolosserbrief*, HthKNT X 1 (Freiburg, Basel, Wien: Herder, 1980), 150은 이 문장을 “전체 서신 안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문장이라”고 한다.

35) 전경연, 『골로새서. 빌레몬서』, 270.

바라다보았던 것이요³⁶⁾

Gnilka: was er beim Eintreten geschaut hat³⁷⁾

Wilckens: wie er sie bei <Einweihung> geschaut hat³⁸⁾

이러한 번역들은 모두가 그 나름대로 해석에 근거한 번역이다. 해석과 무관한 번역이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다. KJV은 별로 신빙성이 없는 후대 사본에 근거해서 부정어 not를 보충해서 번역하고 있으나, 신빙성 있는 오래된 사본들은 부정어를 말하지 않는다. 후대의 사본이나 KJV는 not를 보충할 때 매끄럽게 번역되고 이해될 수 있다고 여긴 것 같다. 우리말 번역들은 ASV나 TEV 그리고 Lutherbibel에 가깝다. Gnilka, Wilckens, 슈바이처 그리고 전경연의 번역은 단어의 종교사적인 의미에 충실한 것이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말 번역 성경들은 모두가 분사 ἐμβατεύων을 번역하지 않는다. 영어나 독일어 번역 성경들도 그렇다. 이 분사를 번역하지 않는 것은, 번역과 이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의지하여”(개역), “정신을 팔고”(공동번역), “도취되어”(표준새번역) 등은 사실 본문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는 번역이고, 단지 종교사적인 해석에 근거한 것이다. 이런 번역은 ἃ ἑώρακεν ἐμβατεύων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분사는 번역하지 않고, 중성 관계대명사를 관계적인 의미로 수용하는 것이다.³⁹⁾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가 들어가서 본 것과 관련해서”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 “들어가다”는 어디로 들어간다는 말인가? 바로 여기에 종교사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이 그리스어 동사는 보통사람들에게는 출입이 제한된 어떤 특별한 영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종교사적으로 이 동사는 밀의종교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헬라-로마의 밀의 종교 의식에서 이 단어는 어떤 이가 축성을 받음으로써 환상으로 본 어떤 성스러운 곳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한다.⁴⁰⁾ 밀의종교 영향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신구약 중간시대 유대교의 묵시문학과 신비문헌에서도 이 단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러한 유대교의 멜카바(Merkabah) 문헌에 의하면, 의인들은 환상 가운데 신비롭게 승천을 해서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았다.”⁴¹⁾ 골로새에 나타난 이단자들

36) 에두아르트 슈바이처, 『골로사이서』, 국제성서주석 40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83), 168.

37) J. Gnilka, *Der Kolosserbrief*, 144.

38) U. Wilckens, *Das Neue Testament*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haus, 1976²), 442.

39) Blass/Debrunner/Rehkopf, *Grammatik des Neutestamentlichen Griechisch*, § 154,3 참조. 종교사적인 번역이라면 차라리 그닐카(Gnilka)나 빌켄(Wilckens) 그리고 슈바이처와 전경연의 번역이 더 나올 수 있다.

40) E. Lohse, *Der Brief an die Kolosser und an Philemon*, KEK 9/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8), 176-178 참조.

은 그들이 이러한 신비한 환상을 체험했다고 주장하며, 그 보았던 것들과 관련해서 육신의 생각 속에서 교만해졌기 때문에 교인들을 유혹했다. 거의 모든 번역 성경들은 골로새교회에 이단자들이 나타났다는 전제를 받아들인 종교사적인 해석에 근거한 번역이다.

그러나 골로새서에서 이단 논쟁을 부정하는 학자들은 이 어려운 구절을 매우 간단하게 해석하고 번역한다. “누군가”는 특별한 종교적인 체험에 근거해서 교만해진 이단자들이 아니라, 그냥 기독교의 믿음이 없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말한다. 그가 어떤 연유로 골로새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의 광경을 “보았으며”, 그가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한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가 교회 안에서 보았던 성도들의 예배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늘의 거룩한 무리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의식 속에서(1:12-13) 외부인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차원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3:16). 외부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비판할 수 있었다.⁴²⁾ 그들의 비판은 “육신의 생각”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이들의 비판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서신의 저자는 생각했기 때문에 18절의 교훈을 하고 있다.⁴³⁾

3.4. 번역의 제안:

우리가 보았듯이, 2:18은 해석의 전제가 없이는 결코 번역되기 어렵다. 본문에서 이단논쟁을 전제하고 종교사적인 해석을 전제로 하는 번역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이단논쟁을 거부하고 일반적인 번역을 수용할 것이냐는 이 구절만으로는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2:18만을 본다면, 두 개의 해석의 가능성은 모두 존재한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번역을 제안한다.

누구도 너희를 겸손과 천사 숭배에 있어서 악의적으로 판정하지 못하게 하라. 그는 들어오면서 보았던 것들과 관련해서, 그의 육신의 생각에 근거해서 헛되이 교만해져 있기 때문이다.

41) 다양한 증거구절들에게 대해서는 C. 마빈 페트, 『사해사본과 신약성서』, 유태엽 역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출판부, 2008), 261-262; Sappington, *Revelation and Redemption at Colossae*, 155-158 참조.

42) 조금 차원이 다르기는 하지만 고린도전서 14:6-25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방언을 한다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방언과 예언은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당시 교회의 예배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참석할 수 있고, 그들이 방언과 예언을 보고 들으면 “미쳤다고”고 비난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23-24절).

43) A. Standhartinger, *Studien zur Entstehungsgeschichte und Intention des Kolosserbriefs*, 189.

이 번역은 이단 논쟁을 거부하는 입장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골로새서의 전체적인 신학의 맥락에서 이단 논쟁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골로새서에서 이단 논쟁을 전제한다고 하더라도, 18절을 밀의종교를 배경으로 이해하고 번역할 것인지, 아니면 유대교의 묵시적인 신비문헌에 근거해서 이해하고 번역할 것인지는 논란의 대상이다.⁴⁴⁾ 명확한 결론은 불가능하다.

4. 나가는 말

성서의 번역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가장 좋은 번역은 번역자의 해석이 최소한이 되고, 그리스어 본문을 그대로 번역하는 소위 직역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신약성서의 번역은 수천 년 전에 코이네 그리스어로 기록된 본문을 오늘의 독자들에게 소통시키기 위한 것이다. 소통되지 않는 번역은 무의미하다. 이를 위해서는 출발 언어의 종교와 문화도 알아야 할 것이고 대상 언어의 종교와 문화도 알아야 한다.⁴⁵⁾ 또한 성경의 문헌들에 얽힌 다양한 신학적인 논란들이 결국은 본문에 대한 해석과 번역에서 출발해서, 다시 번역과 해석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해석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면, 번역도 역시 다양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골로새서의 두 구절들(1:24와 2:18)에 얽힌 번역과 해석의 어려움과 다양성을 살펴봄으로써 그 점을 확인하였다. 골로새서가 바울의 저작이냐 아니면 바울 이후의 저작이냐는 신학적인 논란은 1:24의 번역과 해석에서 출발해서, 다시 그 구절의 번역과 해석으로 되돌아간다. 골로새서가 이단논쟁의 맥락에서 기록된 것이냐 아니냐 하는 신학적인 논쟁도 연관된 다른 구절들(2:2:4.16.21-23 등)과 함께 2:18의 번역과 해석에서 출발해서 다시 그리로 되돌아간다. 서두에서 밝힌 대로, 성경의 번역은 정경적인 원문을 가능한 정확하게 보존해야 하며 동시에 번역에서도 그 권위가 훼손됨이 없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번역자의 신학이 가능하면 배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원칙이 지켜지기에는 성경의 본문 자체가 너무나 많은 난점들을 가지고 있다. 해석이 없는 번역은 거의 불가능하다. 번역은 필연적으로 해석을 요구하고, 해석은 반드시 번역에

44) 가장 최근의 논의에 대해서는 A. R. Bevere, *Sharing in the Inheritance, Identity and the Moral Life in the Colossians*, JSNT Supplement Series 226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3), 100-113 참조.

45) 성경 번역에 있어서 문화의 중요성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D. Katan, *Translating Cultures: An Introduction for Translators, Interpreters and Mediators*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2004)와 이 책을 비판적으로 소개하는 「성경원문연구」 제21호(2007년 10월) 김경식의 서평을 참조.

영향을 끼친다. 하나의 번역이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가능한 다양한 번역의 가능성들을 인정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성경의 번역도 신학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모든 신학은 겸손해야 한다.

<주요어>(Keywords)

성경의 번역과 해석, 골로새서의 저자 문제, 저작 의도.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Bible, the authorship of the Letter to the Colssians, the mention of author.

* 참고문헌(References)

- 김경식, “<서평> Katan, D., *Translating Cultures: An Introduction for Translators, Interpreters and Mediators*,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2004”, 「성경원문연구」 21(2007년 10월), 166-183.
- 김지철, 『고린도전서』, 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38,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박익수, 『고린도전서 주석. 누가 과연 참 그리스도인인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 유지미, “<서평> Stine, Ph. C., *Let the Words Be Written: The Lasting Influence of Eugene A. Nida*, Leiden: Brill Academic Press, 2004”, 「성경원문연구」 22(2008년 4월), 223-239.
- 이상훈, “성서번역을 위한 해석학적 긴장 문제”, 「성경원문연구」 2(1998년 2월), 7-18.
- 전경연, 『골로새서. 빌레몬서』, 대한기독교서회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43,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 조경철, “골로새서에 나타난 ‘철학’과 ‘바울의 복음’”, 「신학과 세계」 61(2008년 봄), 34-57.
- 슈바이처, E., 『골로사이서』, 국제성서주석 40,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83.
- 페트, C. 마빈, 『사해사본과 신약성서』, 유태엽 역,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출판부, 2008.
- Arnold, C. E., *The Colossian Syncretism: The Interface Between Christianity and Folk Blief at Colossae*, Tübingen: J.C.B. Mohr, 1995.
- Bevere, A. R., *Sharing in the Inheritance, Identity and the Moral Life in the Colossians*, JSNT Supplement Series 226,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3.
- Blass/Debrunner/Rehkopf, *Grammatik des Neutestamentlichen Griechisch*,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4¹⁶
- Boer, M. C. de, “Images of Paul in the Post-Apostolic Period”, *CBQ* 42 (1980), 359-380.
- Delling, G., Art. πληρησκη. *ThNWT VI*, 283-309.
- DeMaris, R.E., *The Colossians Controversy: Wisdom in Dispute at Colossae*, JSNT.S 96, Sheffield: JSOT Press, 1994.
- Ernst, J., *Die Briefe an die Philipper, an Philemon, an die Kolosser, an die Epheser*, Regensburg: Verlag Friedrich Pustet, 1974.
- Francis, F., “Humility and Angelic Worship in Col. 2:18”, F. Francis and W. Meeks eds. *Conflict at Colossae*, Missoula: Scholars Press, 1975.
- Fridrichsen, A., “Θ Ε Λ Ω Ν Col 2,18”, *ZNW* 22 (1922), 135-137.

- Gnilka, J., *Der Kolosserbrief*, HthKNT X 1, Freiburg, Basel, Wien: Herder, 1980.
- Hoffmann Ernst G./Siebenthal Heinrich v., *Griechische Grammatik zum Neuen Testament*, Riehen/Schweiz: Immanuel-Verlag, 1985.
- Hooker, M.D., “Were There False Teachers in Colossae?”, B. Lindars and S. S. Smally eds., *Christ and Spirit in the New Testa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1973.
- Katan, D., *Translating Cultures: An Introduction for Translators, Interpreters and Mediators*,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2004.
- Klaiber, W., “(Bibel-)Übersetzen - eine unmögliche Aufgabe?”, *Theologische Literaturzeitung* 133 (2008), 468-492.
- Koller, W., *Einführung in die Übersetzungswissenschaft*, UTB 819, 2004⁷.
- Kremer, J., *Was an den Leiden Christi noch mangelt. Eine interpretations-geschichtliche und exegetische Untersuchung zu Kol 1.24b*, BBB 12, Bonn: Hanstein, 1956.
- Lindemann, A., *Der Kolosserbrief* ZBK.NT 10,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1983.
- Lohse, E., *Der Brief an die Kolosser und an Philemon*, KEK 9/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8.
- Martin, T.W., *By Philosophy and Empty Deceit: Colossians as Response to a Cynic Critique*, JSNT.S 118,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 Nida, E. A.,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Principles and Procedures Involved in Bible Translation*, Leiden: Brill Academic Press, 1964.
- Nielsen, C. M., “The Status of Paul and his Letters in Colossians”, *PRSt* 12 (1985), 103-122.
- Rowland, Chr., “Apocalyptic Visions and the Exaltation of Christians in the Letter to the Colossians”, *JSNT* 19 (1983), 73-83.
- Sappington, T., *Revelation and Redemption at Colossae*, JSNT.S 53, Sheffield: JSOT Press, 1991.
- Schrage, W., *Der erste Brief an die Korinther (1Kor 15,1-16,24)*, EKK VII/4, Zürich; Düsseldorf: Benzinger; Neukirchener: Neukirchener Verl. 2001.
- Standhartinger, A., *Studien zur Entstehungsgeschichte und Intention des Kolosserbriefs*, Leiden: Brill Academic Press, 1999.
- Stine, Ph. C., *Let the Words Be Written: The Lasting Influence of Eugene A. Nida*, Leiden: Brill Academic Press, 2004.
- Venuti, L., *The Translator's Invisibility-A History of Translation*, London, 1995.
- Wilckens, U., *Das Neue Testament*,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haus, 1976².

<Abstract>

Reflections on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Colossians 1:24 and 2:18

Prof. Kyong Chul Cho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In the translation of the Bible, how extensive can the role undertaken by interpretation be? According to the theory of Bible translation, the more we exclude our own interpretation from Bible translation, the better it becomes. But is it possible to remove our interpretation from Bible translation? This is the beginning question of this study. In addition, the theological argument around biblical texts starts from Bible translation, and then definitely influences the translation of the Bible after all. This is another question we want to ask. As an illustration, we will research both Colossians 1:24 and 2:18 in order to answer these questions. These two verses play an important role for the theological argument on the authorship and the intention of the Colossians. But at the same time, these two verses have very serious problems in translation, and their problems are closely related to theological arguments.

Colossians 1:24 acts as a significant ground for the deutropauline authorship of the Letter to the Colossians. Depending on how we translate and interpret the verse, a serious misunderstanding could result from Paul's expression, particularly from the expression, "ἀνταναπληρῶ τὰ ὑστερήματα τῶν θλίψεων τοῦ Χριστοῦ ἐν τῇ σαρκί μου." Therefore, as we study the structure and concepts of the verse and translate it, we can (and want to) remove the misunderstanding and then come to the conclusion that Colossians 1:24 is recalling Paul's suffering as salvation-historical in the post pauline era. Therefore, the verse speaks about not only the θλίψις of Paul, but also his παθήμα.

Colossians 2:18 is also a key verse for understanding the intention of writing the Colossians. Was this Letter written against heresy or not? Those who read the anti-heretic argument in the Colossians translate and interpret the verse religionsgeschichtlich,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Greco-Roman mystery religions or in the Jewish apocalyptic mysticism. But those who reject the anti-heretic argument in the Colossians read and translate the verse very differently.

From our study, we can conclude that it is impossible to completely exclude our interpretation from Bible translation, and that all theological arguments begin with Bible translation, which in return influences in Bible translation again. After all, every translation is a relative work with its limitation; therefore, every translator and theologian should act in humility.